

‘좀비’·‘역병’보다 무서운 인간의 욕망

조선에 창궐한 불면(不眠)의 좀비 떼가 밤 낮없이 살아있는 인간들을 물어뜯는다. 먹잇감만 보고 달리는 좀비들로부터 살아 남기 위해 인간은 피를 뒤집어쓴 채 싸운다. 누가 좀비고 누가 인간인지 분간조차 되지 않는다.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좀비를 전염병으로 풀어낸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킹덤2’ 시즌 2가 마침내 지난 13일 베일을 벗었다. 이전 시즌과 마찬가지로 6부작으로 구성된 시즌 2에서는 밝은 태양 빛 아래서 인간의 살과 피를 탐하는 좀비 모습이 그려진다.

좀비들에게 물어뜯기며 고통스러워하는 인간과 그 주위로 뿌려지는 붉은 피가 생생할 정도로 잔인함의 수위는 전 시즌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대낮의 좀비는 더 섬뜩하다.

시즌1의 복선들이 회수되고 등장인물들이 역병의 진실에 가까이 다가간다. 혈통과 권력에 집착하는 욕망이 역병보다 더 무서운 것으로 표현된다.

시즌1에서 왕의 병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한양과 가장 먼 동래로 간 세자창(주지훈 분)은 이번 시즌에서는 갇힌 길을 되돌아다시 한양으로 향한다. 이 과정에서 창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시즌 1에서는 나약하고 권력조차 없는 왕자 모습으로 시작한 그는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진정한 리더로 거듭난다. 역병으로부터 백성들을 살리고자 분투하는 창의 모습은 굶주리는 백성의 모습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조학주(류승룡)와 대비한다. 의녀 서비(배두나)는 역병의 원인과 치료법을 밝히려 한다. 그는 좀비들이 무



‘킹덤2’

/넷플릭스 제공

‘킹덤2’ 6부작 구성…진실 파헤치는 혈투 피투성이 사람들 쫓는 좀비 떼 모습 압권

서위하는 물에 집중한다.

등장인물들은 모두 피를 쫓는다. 좀비들이 살아있는 인간이 흘리는 피 냄새를, 조학주 등 세도가들은 혈통에 집착한다. 핏줄에 집착하는 모습을 이성이나 남이 갖지 않은 채로 인육을 탐하는 좀비와 같은 선상에 놓으면서 이 드라마가 비판받고자 하는 지점이 보다 뚜렷해진다.

몇몇 등장인물의 권력에 대한 욕망은 전보다 더 노골적이다. 시즌1에서는 조선

좀비를 소개하는 정도였다면 시즌 2에서는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좀비를 이용한다. 스킬도 더해졌다. 회를 거둬갈수록 인간을 습격하는 좀비 수가 많아져 조마조마함을 느끼는 재미가 있다.

하이라이트는 권력 중심인 궁에서 역병이 퍼져 핏빛 혈투가 벌어지는 장면이다. 흰 상복을 입고 피투성이가 된 채 살아남은 사람들을 쫓는 좀비 떼 모습은 가히 압

도적이다. 이들의 머리를 자르며 혈투를 벌이는 살아남은 사람들조차 피투성이가 돼 좀비들과 뒤엉킨다.

역병이 한 지역에서 빠른 속도로 퍼진다. 조정은 그 지역을 폐쇄한다. 역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떠난다. 의녀는 환자의 증상을 통해 치료법을 알고자 노력한다. 역병이 창궐하는 것을 억압하려 하는 세력도 등장한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역병이 사라졌다가 추위지면 다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최근의 코로나19 확산과 닮은 듯하다. “아무리 끔찍한 병도 막을 방도가 있다”는 서비의 말도 의미심장하게 들린다.

/연합뉴스

미개봉 신작 상영 프로젝트 운영

수입배급사들, 매주 3~4편씩 개봉키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극장가가 신작 공백을 겪는 가운데 영화수입배급사들이 미개봉 신작들을 상영하는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사)영화수입배급사협회(KBDF)는 회원사들의 미개봉 신작 10편을 극장과 협의해 매주 3~4편씩 개봉하는 ‘영화로운 일상을 위한 신작전’을 연다고 밝혔다.

일본 대배우 키키 기린의 유작 ‘모리의 정원’을 비롯해 ‘행복의 단추를 채우는 완벽한 방법’, ‘재즈다큐멘터리 ‘슈윙! 블루 노트 레코드 스토리’ 등을 선보인다.

아델 에넬 주연의 프랑스 영화 ‘그 누구도 아닌’, 일본 로맨스 ‘사랑이 뭘까’, 호러 영화 ‘시체들의 새벽’, 기독교 영화 ‘기도의 힘’ 등도 개봉한다.

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관객이 급감한 데다, 극장은 재개봉과 기획 전으로 운영되는 상황”이라며 “영화계 생태계를 지키고 관객의 문화적 일상 유지를 위해 이번 신작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협회에는 그린나래미디어, 누리픽처스, 더블앤조이픽처스, 더룸, 마노엔터테인먼트, 씨네룩스, 에스와이코마드, 옛나



‘모리의 정원’ /영화사 진진 제공

인필름, 영화사 레인보우팩토리, 영화사 진진, 조이엔시네마, 찬란, 코리아스크린, 콘텐즈게이트 등 14개사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한편, 영화 상영권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단체인 한국상영발전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일시적으로 면제해 줄 것을 영화진흥위원회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2PM, 일본 오리콘·타워레코드 정상

그들 2PM이 일본에서 발매한 베스트 앨범으로 주요 차트 정상에 석권하며 일본 내 인기를 재확인했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날 정식 발매된 ‘더 베스트 오브 2PM 인 저팬 2011-2016’은 지난 12일 오리콘 일간 앨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일본 최대 레코드 샵인 타워레코드 일간 세일즈 차트에서 역시 1위를 기록했다. 정식 발매일 전인 지난 12일을 기준으로 이 앨범이 두 차트 정상에 오른 것은 발매 전 예약구매 수량이 합산됐기 때문이다.

‘더 베스트 오브 2PM 인 저팬 2011-2016’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2PM이 일본에서 발표한 일본어 가장 곡을 모은 음반이다.

2PM은 2011년 도쿄에서 ‘2PM 퍼스트 콘서트 인 저팬’이라는 타이틀로 1만



2PM 일본 베스트앨범 ‘더 베스트 오브 2PM 인 저팬 2011-2016’ 표지 사진. /JYP엔터테인먼트 제공

석 규모 쇼케이스를 개최하며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이후 수차례 일본 전국 투어를 하고 멤버 개별로 솔로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현지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며 활약했다.

멤버들이 입대를 하기 전인 2016년 10월에는 도쿄돔에서 2회 단독 공연을 열기도 했다.

/연합뉴스

디즈니플러스, ‘겨울왕국2’ 3개월 일찍 서비스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극장가가 타격을 입은 가운데, 디즈니가 히트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의 주연형비디오(VOD) 서비스를 미국에서 예정보다 3개월 일찍 시작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디즈니의 스트리밍 플랫폼 디즈니플러스는 15일부터 미국에서 ‘겨울왕국2’ 서비스를 시작했다.

디즈니는 성명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운 시기에 즐거움과 재미를 선사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13일 출범한 디즈니플러스는 지난달까지 가입자 2,860만 명을 확보했다. 콘텐츠 왕국 디즈니의 디즈니플러스는 근래 가장 중요한 신규사업이다. 디즈니는 ‘겨울왕국2’ 등 인기 콘텐츠를 통해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오프라인 사업의 부진을 만회하고 싶어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디즈니의 전 세계 직원들은 재택근무에 돌입했으며, 각종 콘텐츠 제작은 중단된 상태다. 온라인 스트리밍 최강자 넷플릭스 역시 코로나19로 향후 2주간 대부분의 콘텐츠 제작이 중단된 상태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임영웅, ‘미스터트롯 1위’ 영웅됐다

실시간 국민투표 점수에서 만점 획득 “돌아가신 아버지가 준 선물이라 생각”

화제의 트로트 오디션 서바이벌 TV 조선 ‘미스터트롯’의 최종 우승 트로피는 임영웅이 차지했다.

경연 내내 유력한 우승후보로 꼽혔던 임영웅은 지난 14일 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생중계된 ‘내일은 미스터트롯-최종결과발표’에서 1위인 진(眞)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진으로 호명되자 눈물을 흘린 임영웅은 큰절을 하고 “정말 오랜 시간 TV를 보며 시청해준 시청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항상 진심을 다해서 좋은 조언과 평가해 주신 마스터분들께도 감사하다. 날아주신 어머니, 할머니 감사드립니다”라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지난 결승전 생방송 날이 아버지 기일이었습니다. 엄마 혼자 남겨두고 미안하다고, (아버지가) 선물 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도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문자 투표에서 전체 투표수의



임영웅.

/TV조선 캡처

25%가량에 해당하는 137만4,748표를 얻어 실시간 국민투표 점수에서 만점을 받고 중간점수 결과 2위를 뒤집었다.

2위인 선(善)은 영탁, 3위인 미(美)는 이찬원이 차지했다. 영탁은 “잘 키워 주셔서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음악을 하면서 이렇게 큰 상을 바치는 게 처음이다”며 “국민들이 힘든 시기인데 저희

는 좋은 에너지와 음악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노래를 부를 겁니다”고 다짐했다.

마스터 합산점수에서 유일하게 1,900점대를 받아 중간까지 1위를 달리던 대학생 참가자 이찬원은 “많은 선배님들과 함께 무대에 설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최종 7명에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미’라는 영광스러운 자

리까지 차지하게 돼 더욱 감사하다”고 말했다.

진·선·미 외에는 김호중이 4위, 정동원 5위, 장민호 6위, 김희재 7위로 나타났다.

‘미스터트롯’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에 결승전 경연은 지난 12일 녹화 방송했지만, 실시간 문자투표를 받아 우승자 발표는 생방송으로 진행했다.

전날 새벽까지 진행된 ‘미스터트롯’은 최종 우승자와 순위를 발표하지 못하는 대형 방송사고를 냈다.

제작진은 문자투표수가 773만1,781표나 몰려 서버 과부하로 발생한 일이라며 사과했다. 우승자를 비롯한 ‘미스터트롯’ 경연 참가자들은 오는 19일 방송되는 ‘미스터트롯의 맛-토크 콘서트’에 출연하며, 다음 달 18일 서울을 시작으로 7월까지 전국투어 콘서트 무대에 오른다.

/연합뉴스

오늘의 운세 김도완 선생 제공 02-766-1818 www.esazu.com

3월 16일 (음력 2월 22일)



48년생 소중한 사람과 유익한 만남이 있다. 60년생 노력하면 이루어진다. 72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84년생 착한 척하면 미움을 받는다.



49년생 정성을 다하면 못 일을 일이 없다. 61년생 잡고 버티면 좋은 기회가 온다. 73년생 최선을 다하면 후회가 없다. 85년생 정의로운 사람은 사랑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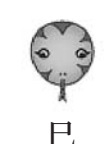
50년생 현실을 망각하면 낭패를 보겠다. 62년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이다. 74년생 주변의 충고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 86년생 대인관계가 좋아진다.



51년생 어른이 이해하고 잘 이끌어야 한다. 63년생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 75년생 행복과 불행은 함께 찾아온다. 87년생 신용이 회복되고 앞날은 밝아온다.



52년생 괜한 시비에 휘말리지 말라. 64년생 노력은 운명을 바꾸기도 한다. 76년생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88년생 사랑에 빠지는 행복한 날이다.



41년생 조용히 실속만 챙겨라. 53년생 힘들고 신경 쓰이는 일이 생긴다. 65년생 후회할 일은 아예 시작을 말라. 77년생 능력을 인정받는 행복한 날이다.



42년생 다소 억울한 일이 있겠다. 54년생 자신감을 갖고 정면 돌파하라. 66년생 무리한 투자는 삼가고 심사숙고하라. 78년생 숨겨둔 실력을 펼치는 날이다.



43년생 인정에 끌려 다니지 말라. 55년생 운명은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다. 67년생 자존심이 밥 먹여주지는 않는다. 79년생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이다.



44년생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다. 56년생 모란 돌이 정 맞는다. 68년생 마음을 굳게 쓰면 복을 받는다. 80년생 내 일이 아니라면 참견하지 말라.



45년생 양지가 읊지 되는 날이다. 57년생 추진하고 있는 일에서 성과를 내겠다. 69년생 시작이 반이다. 81년생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



46년생 역시 구관이 명관이다. 58년생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70년생 모처럼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82년생 동서남북에 운이 활짝 열렸다.



47년생 과감한 결단과 추진력이 필요하다. 59년생 앞날이 캄캄하고 걱정스럽다. 71년생 허세를 부리면 오히려 불리해진다. 83년생 첫 인상을 너무 믿지 말라.